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고등부 특수학급 학생들의 진로계획 능력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송 은 주*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이 숙 향**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요 약 》

성인기 전환을 앞두고 있는 장애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고 계획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고등부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실험집단 20명과 통제집단 2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진로계획 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 학생들의 진로계획 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는 실험집단의 학생들이 웹을 통해 자신의 적성, 흥미, 가치관과 같은 자기이해의 과정 및 다양한 직업 탐색에 대한 의사결정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직업현장의 멘토와 연계하는 멘토링 진로학습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성인기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장애청소년들을 위한 진로교육 및 전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향후 연구방안에 대한 논의 및 제언이 제시되었다.

주제어 : 장애학생, 진로교육 프로그램, 진로계획, 자기효능감

* 제1저자(sej882001@hanmail.net)

** 교신저자(deepjoy@ewha.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생에 걸친 진로선택은 한 개인이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의 가치관이나 태도, 인간관계, 사회경제적 지위, 정신건강과 신체건강, 거주지 등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측면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장애학생들에게 있어 진로를 선택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들 개개인의 가치관이나 적성, 흥미, 직업능력, 진로발달 단계 등을 고려하여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김희승(2000)의 고등부 특수학급의 진로교육의 실태조사연구에 의하면 고등부 특수학급 진로교육의 55.5%가 진로지도 자료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프로그램보다는 대부분 전환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고등부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로지도,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한 적절한 진로결정을 위한 교육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장애학생의 전환교육이 생활중심과 기능중심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개성과 소질과 관련된 직업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다양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Green과 Kochhar-Bryant(2003)도 학생들의 요구와 강점을 평가하고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목표들을 개발하고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선택과 진로기회의 탐색 그리고 진로선택을 위해 적절한 직업습관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집중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웹을 이용하여 다양한 진로선택 및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웹기반을 이용한 진로탐색은 학생들이 자기 이해를 통해 일과 직업의 세계를 탐색하고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박영태, 2001). 인터넷을 통한 직업정보의 탐색은 익명으로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자기모습을 노출시키거나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는 데서 오는 심리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장점(김현진, 2003)과 더불어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 진로상담을 위한 도구로서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의 활용은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다양한 직업정보를 바탕으로 진로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김영혜, 1997).

이처럼, 웹기반을 이용한 진로탐색 과정은 장애학생들이 자신들의 장점과 직업 탐색의 현실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음으로써,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웹기반을 이용한 진로탐색과정과 더불어 멘토링을 이용한 직업탐색과 직업체험 학습의 과정도 전환기의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진로교육기회를 제공한다.

Grandin(2007)에 의하면 자폐성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사회적, 학문적 상황 모두에서 자신들의 방향을 정하고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무급이나 유급의 멘토를 찾자 하며, 멘토의 지도와 코우칭을 통해 그들의 독특한 요구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성인기 전환을 준비한다고 보고하였다. 학생에게 학교 밖에서 실제적인 사회 경험과 멘토를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 및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은 장애학생들에게 졸업이후 지역사회에 참여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Kochhar-Bryant et al., 2009 재인용). 장애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이러한 진로교육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또한 찾을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효능감이다.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선천적 기질, 성, 인종, 건강)과 배경변인(사회적지지, 역할모델, 경제적 여유)들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은 진로와 관련된 선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은경, 2001). 이은경(2010)은 장애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에서 장애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자아정체감과 함께 자기효능감을 들었다. 장애청소년이 자신의 장애의 독특성을 수용하고, 자신의 가치와 특성을 파악하여 사회에 참여할 때, 자신이 계획한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자신이 결정한 직업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최용용 외(2008) 또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지체장애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장애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직업세계 탐색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을 때, 지체장애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 능력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밝히고 있으며, 장애학생들이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진로선택에 있어서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과정의 부재, 진로를 선택하는 의사결정능력의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진로결정과 관련된 자기효능감 뿐만 아니라 개인이 장차 종사하고자 하는 직업 분야를 이해, 탐색, 선택, 준비하는 사전의 치밀한 직업준비과정인 진로계획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개인의 생애에 풍요로운 삶과 기회를 제공해준다. 진로계획의 중요한 목적은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예견하고 사전에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으며 자아의 탐색, 직업세계의 이해와 탐색, 진로정보의 이해, 진로발달과정의 이해, 직업인의 역할과 성공사례 등을 알게 하여 직업선택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을 강화

한다(김충기, 1999). 안미영(2007)은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목적성, 확신성, 결정성, 준비성 등에서 매우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이경숙(2007)에 의하면 교과관련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초등학생들에게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진로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에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상일(2009)은 동아리활동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동아리활동 위주의 체험활동이 학생들의 진로계획 능력에 많은 향상을 보임을 밝혔다.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계획 능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들을 보고하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장애학생들도 수준에 맞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분야를 이해하고, 탐색, 선택, 준비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진로계획 능력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 및 잠재적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주로 일반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현재 중등 특수교육현장에서 장애청소년들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만을 제기하는데 그치고 있어 실제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부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진로 및 직업 탐색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 프로그램이 고등부 특수학급 학생들의 진로계획 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고등부 특수학급 학생들의 진로계획 능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고등부 특수학급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 S지역과 W지역에 위치한 고등부 특수학급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실험집단 20명과 통제집단 20명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층화표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모집단의 수가 명확하지 않고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S지역의 3개 특수학급과 W지역 3개 특수학급 중에서 학부모와 학교 행정가들의 동의를 얻은 총 4개의 고등부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도지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집단 20명은 W지역의 2개 학급, 통제집단 20명은 W지역 1개 학급과 S지역 1개 학급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대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는 학생들을 선정하였다.

- 1) 지능검사(K-WISC-III: 광금주 외, 2002) 결과 지능지수가 50-75 사이의 경도 지적장애학생 범주에 해당되는 학생
- 2) 사회성숙도 검사(김승국, 김옥기, 2006) 결과 사회성 지수가 45 이상인 학생
- 3) 담임교사와의 상담결과 진로계획 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읽기수행이 가능하며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쓰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 4) 과거에 웹기반을 이용한 체계적인 진로교육프로그램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

이상의 조건에 부합하는 연구의 최종대상자는 40명으로 연구 대상학생들 각 집단의 지능지수, 사회성지수 및 연령구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학생의 지능지수, 사회성지수, 성별, 연령 분포

	구 분	실험집단(20명)	통제집단(20명)
연령	15세	2	0
	16세	7	5
	17세	7	11
	18세	4	4
지능지수 (IQ)	50-59	12	8
	60-69	5	8
	70-75	3	4
사회성지수 (SQ)	45-54	8	7
	55-64	8	11
	65-80	4	2

두 집단 간의 지능지수, 사회성 지수, 연령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집단별 연구 대상자 선정 변인에 대한 *t* 검증결과

구 분	실험집단(<i>n</i> =20)		통제집단(<i>n</i> =20)		<i>t</i>
	<i>M</i>	<i>D</i>	<i>M</i>	<i>SD</i>	
연령	17.06	0.84	17.31	0.80	.98
IQ	59.55	7.46	61.30	7.19	.75
SQ	57.75	8.55	59.10	9.67	.45

<표 2>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연구 대상자 선정 변인에 대한 *t* 검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연구 대상자의 연령, 지능지수(IQ), 사회성지수(SQ)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참여한 교사들은 실험집단, 통제집단 각각 3명씩 6명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정보는 <표 3>과 같다.

<표 3> 집단별 실험에 참여한 교사 정보

구 분	실험집단(<i>n</i> =3)	통제집단(<i>n</i> =3)
연령	40대(2명), 20대(1명)	40대(2명), 20대(1명)
교육경력	15년 이상(1명), 10년 이상(1명), 3년 미만(1명)	10년 이상(2명), 3년 미만(1명)
정규/기간제	정규(2명), 기간제(1명)	정규(2명), 기간제(1명)

실험집단에 참여한 교사 3명중 정규 교사 2명은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프로그램’의 모든 단계에서 학생을 지도하였고, 기간제 교사 1명은 정규교사의 수업 지원과 함께 ‘멘토링 진로교육 단계’에서 정규교사와 함께 공동으로 멘토 연결하고, 직업체험 장소 선정 및 장소안내를 수행하였다. 통제집단 교사 3명은 지역사회 중심 진로교육프로그램(박석돈, 2006)과 생활기능 중심 진로교육프로그램을 회기별로 나누어 지도하였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 프로그램이며, 종속변인은 진로 계획 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점수이다. 본 연구의 설계는 사전-사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pretest-posttest group design)로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중재프로그램 실시전과 실시 후의 사후 검사점수의 차이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표 4>와 같다.

<표 4> 사전-사후검사 통제집단 설계

구분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O ₁	X	O ₂
통제집단	O ₃		O ₄

O₁, O₃: 사전검사(진로계획성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

O₂, O₄: 사후검사(진로계획성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

X: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 프로그램

3. 검사 도구

1) 진로계획성 검사지

본 연구의 진로계획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종범(2005)이 개발한 초등학생 진로발달 검사의 진로계획성 요인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진로계획성 문항에 대한 신뢰도(Cronbach α)는 .91로 나타났다(이종범, 2005). 진로계획성 검사의 하위영역에는 (1) 의사결정과정 이해(합리적 의사결정 성향정도), (2) 생애역할계획(주어진 생애역할에서의 계획행동정도), (3) 진로계획과정이해(미래 진로계획에 대한 인식 및 이해정도)가 있으며,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의사결정과정 이해 3문항, 생애역할 계획 5문항, 진로계획과정이해 10문항). 본 검사지는 Likert형 5점 척도로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계획 수립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임을 의미한다. 고등부 특수학급학생들에게 본 척도를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전문가 2인이 본 검사 문항을 검토, 수정한 후에 사용하였다.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지

본 연구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바람직한 결과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어떤 행동을 잘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Talye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SF)를 이은경(2001)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 대한 신뢰도(Cronbach α)는 .85로 나타났다(이은경, 2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는 4개의 하위영역인 목표선택(원하는 직업을 결정할 수 있는가의 정도), 직업정보(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알고 있는가의 정도), 문제해결(원하는 직업을 위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의 정도)과 미래계획(꿈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의 정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검사지는 Likert형 5점 척도로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임을 의미한다.

4. 독립변인: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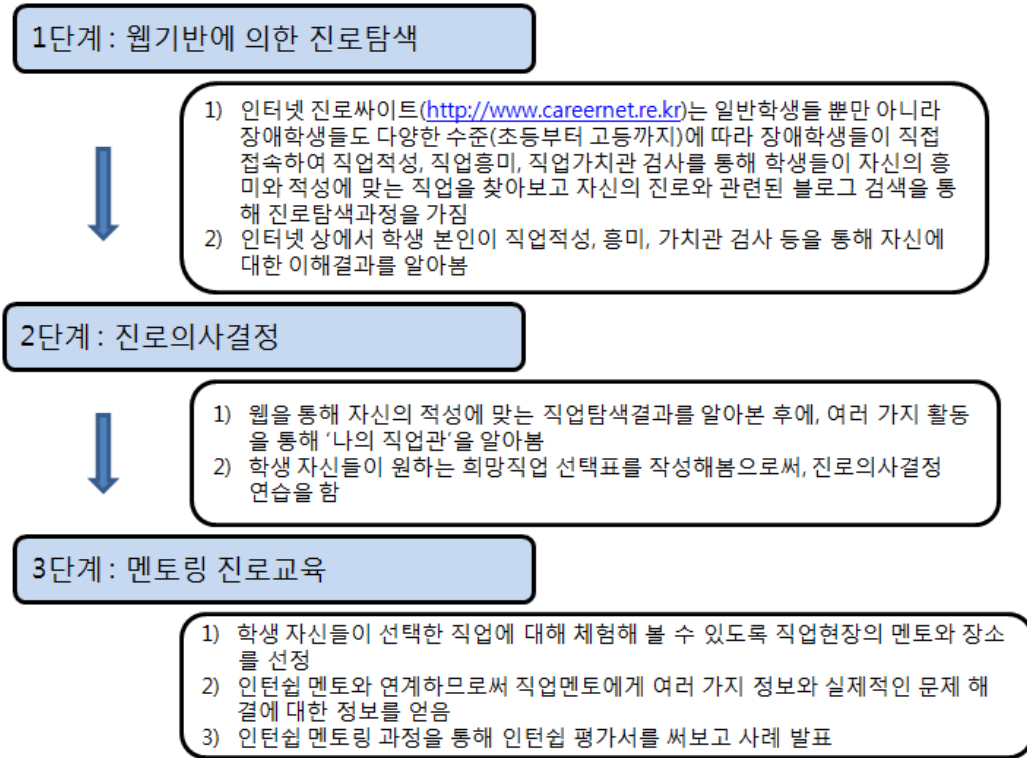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인터넷 카페를 활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유숙경, 2004), 인터넷을 활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방경애, 2005), 청소년 인터넷 프로그램(박미정, 2009)과 지체장애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최용용 외, 2008)의 연구 등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고, 특수교육 전문가 2인과 특수교육전공 교수의 자문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고등부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그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진다.

첫째, 고등부 특수학급 학생들 스스로 웹을 기반으로 하여 학생들 자신이 직업적성, 흥미, 가치관 등을 조사하고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한 자기 주도적인 진로탐색 과정을 가진다.

둘째, 자기 주도적으로 탐색한 진로방향에 맞는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고 진로의 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킨다.

셋째, 멘토링 과정을 거쳐 고등부 특수학급 학생들의 관심에 따른 직업현장에서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학생들 자신의 직업 전망에 대한 자극을 받고 학문적, 개인적 기술을 습득하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단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 프로그램 단계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구성영역과 주요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프로그램의 구성영역과 내용구조

단계	회기	영역	세부실천영역	관련문헌과 자료
1단계: 웹기반에 의한 진로 탐색 단계	1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 자신의 삶에서의 직업의 의미와 중요성 알기 - 최적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 알기	김 옥(2009), 조은숙(2008)
		웹기반에 의한 진로탐색 방법 안내	- 진로탐색 안내 - 진로사이트 검색(http://www.careenet.re.kr)	임 언, 노일경(2001), 박영태 2001)
	2	직업적성과 직업흥미 알아보기	- 직업흥미 검사 결과표를 보고 자신의 흥미 기록하기 - 온라인 검사를 통한 적성과 직업 검사 결과보기	임 언, 노일경(2001), 강옥희(2003)
	3	직업가치관 알아보기	- 온라인을 통한 나의 직업 가치관 검사하기 (http://www.careenet.re.kr) - 온라인을 통한 나의 가치관 검사 결과보기 - '나의 가치 탐색하기' - '가치관 판단 연습하기'	임 언, 노일경(2001), 강옥희(2003), 박영태(2001), 임은미, 장석희(2004)
2단계: 진로 의사 결정 단계	4	종합적 자기이해와 진로 탐색	- 온라인 검사를 통한 자기 이해결과 정리하기 - 자기이해 종합 결과표 해석하기 - 종합한 자기이해에 맞는 진로 탐색	이석영(2006), 주미아(2006)
	5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를 통한 직업 탐색하기	- 블로그 혹은 인터넷카페를 통해 자신이 알고 싶은 직업 탐색 해보기 - 직업탐색결과 발표하기 - 직업선택 질문지를 통해 자신이 알고 싶은 직업 알아보기	강옥희(2003), 박영태(2001), 임은미, 장석희(2004), 유숙경(2003)
	6-8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 조사하기	- 웹기반을 이용하여 직업탐색하기 - 직업카드 작성해보기 - 직업스피드게임을 통해 직업에 대해 알기 - 웹기반 이용한 직업탐색 소감문 쓰기	박영태(2001), 조은숙(2008)
	9	장애인 직업채용 사이트에서 직업정보 조사하기	- 웹기반을 이용하여 장애인 직업채용 사이트에서 직업정보 조사하기	유숙경(2003)
	10	장애인 채용박람회 참가하기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개최하는 장애인 채용박람회 참가하기	Flexer et al(2008)
	11	진로의사결정 과정	- 진로의사결정 방법의 훈련 - 진로의사결정 유형알기 (자신의 의사결정 유형 알기) - 직업과 관련한 학과 선택	최용용 외(2008), Wehman(2006)
	12-13	진로의사결정 연습	- 의사결정 내리기 연습 - 진로의사결정을 통한 희망 직업 선택표 작성하기	김옥(2009), 노기숙(2004), Wehman(2006)
	14-16	진로의사결정 연습	- '나의 미래로 작성하기' - 나의 미래세계, 나의 직업적 포부 세우기	주미아(2006), 이석영(2006)

3단계: 멘토링 진로 교육 단계	17 -20	멘토링 직업체험장소 선정 및 멘토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현장 멘토 연결하기 (직업멘토 15명과 연계) - 직업체험 장소 선정 및 장소안내 (직업체험장소 15곳 선정, 배치) 	조은숙(2008), 박가열(2008)
	21 -22	멘토와 연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턴십 지원신청서 작성하기 - 이력서 작성하기 -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 멘토 신청서 받기 	조은숙(2008), 박가열(2008)
	23 -28	멘토와의 만남 및 직업현장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턴십 활동일지 작성하기 - 직업현장 체험하기 	조은숙(2008), 박가열(2008)
	29	멘토링 직업체험활동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턴십 소감문 제출 및 평가서 쓰기 - 멘토 인턴십 평가서 	조은숙(2008), 박가열(2008)
	30	사례발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와 또래, 부모님께 자신들이 경험한 체험 활동 사례발표해보기 	

5.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직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모두 사전 검사를 실시한 후, 실험집단에 3개월 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종료 직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단계별 기간, 중재기간 및 검사진행절차는 <표 6>과 같다.

<표 6> 검사 및 중재절차

절차	기간 및 회기	내용
사전검사 (실험집단, 통제집단)	2010.10.01 - 2010. 10. 06	진로계획성검사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
중재 (실험집단)	2010. 10. 7 - 2011. 1. 20 (총 30회기)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험집단에 실시
사후검사 (실험집단, 통제집단)	2011. 1. 21 - 2011. 1. 30	진로계획성검사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

1) 사전검사

사전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실험집단의 학생들을 지도할 교사들에게 사전 검사 실시 전 1회 모임을 가지고 실험 실행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선정된 고등부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을 담당하는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부모님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진로계획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를 실시하였다.

2) 프로그램의 실행

웹기반 멘토링 진로 교육프로그램의 실행기간은 2010년 10월 7일부터 2011년 1월 2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주 2회 6시간씩(1회기 당 3시간씩) 실시되었으며, 총 30회기(90시간)로 특수학급 담당교사가 실시하였다. 그리고 실험집단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는 주 1-2회 이상의 유선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통제집단 학생 20명의 고등부 특수학급 학생들은 지역사회 중심 장애학생 진로 교육프로그램(박석돈, 2006)과 생활기능 중심 전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연구기간과 수업시수는 실험집단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실행기간 중 2010년 12월 말부터 1월 20일까지는 방학기간으로 통제집단의 2학급 중 1학급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 전환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예; 늘해랑학교)에 참여하였으며, 다른 1학급 학생들은 학교 자체별로 ‘동계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인 직업훈련과 지역사회 중심 전환교육훈련이 실시되었다.

3) 사후검사

총 30회기의 중재프로그램 실시 후 중재가 끝난 후 2011년 1월 21일부터 1월 30일까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통제집단은 사전에 검사한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실시하고 검사실시의 순서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두 가지 검사를 무선적으로 실시하였다.

6. 자료 처리 및 분석

본 연구는 고등부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진로계획 능력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차이에 대한 차이검증을 두 독립표본 t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SPSS 17.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집단과 받지 않은 통제집단이 학생의 진로계획 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두 독립표본 t 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진로계획 능력에서의 집단 간 차에 대한 검증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진로계획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사전·사후검사간의 차 검증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에서는 유의도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의 진로계획 검사 점수 상에서 볼 때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진로계획 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진로계획 능력의 전체점수에서 유의하였으며 진로계획 검사의 3가지 하위영역인 의사결정과정이해, 생애역할계획, 진로계획과정이해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사후 검사 평균값의 차이에 대한 차는 <표 7>과 같이 분석되었다. 그 결과 진로계획을 알아 볼 수 있는 2가지 영역인 의사결정과정이해와 생애역할계획에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값의 차이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계획과정이해에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값의 차이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7> 학생들이 평정한 진로계획 능력과 하위영역에서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평균값의 차이 검증 결과

집단	실험 집단(n=20)						통제집단(n=20)						t	
	사전		사후		사전·사후 차이		사전		사후		사전·사후 차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진로계획 능력	2.03	0.61	3.25	0.38	1.22	0.77	2.19	0.59	2.31	0.41	0.12	0.44	5.53***	
의사 결정 과정 이해	1.98	0.58	3.28	0.59	1.30	0.73	2.35	0.63	2.25	0.79	0.10	0.61	5.70***	
하위 영역	생애 역할 계획	2.04	0.55	3.21	0.58	1.17	0.78	2.25	0.79	2.40	0.50	0.15	0.76	4.16***
진로 계획 과정 이해	2.03	0.61	3.25	0.38	1.22	1.13	2.09	0.69	2.20	0.48	0.11	0.58	3.87**	

*** $p < .001$, ** $p < .01$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의 집단 간 차에 대한 검증

학생이 평정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대한 자기 평가지에 대한 검사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사후검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들이 평정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차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도 .0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이를 구성하는 하위영역인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사전·사후 검사 평균값의 차이에 대한 차 검증 결과도 <표 8>과 같이 분석하였다. <표 8>에서 보듯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하위영역 모두에서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의 평균값의 차이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수준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8〉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하위영역에서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평균값의 차이 검증 결과

집단	실험 집단(n=20)						통제집단(n=20)						t	
	사전		사후		사전·사후 차이		사전		사후		사전·사후 차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84	0.59	3.79	0.48	1.95	0.81	2.30	0.59	2.36	0.71	0.06	0.98	6.62***	
목표 선택	1.89	0.59	3.86	0.59	1.97	0.85	2.36	2.47	2.08	0.62	0.28	0.97	6.42***	
하위영역	직업 정보	1.89	0.63	3.81	0.65	1.92	0.91	2.08	0.62	2.22	0.75	0.14	1.04	5.72***
문제 해결	1.75	0.77	3.67	1.04	1.92	0.32	2.20	0.84	2.28	2.49	0.08	1.23	4.32***	
미래 계획	1.84	0.59	3.79	0.48	1.95	0.92	2.30	0.59	2.36	0.71	0.06	1.38	5.67***	

*** $p < .001$

즉,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에 있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경기 S 지역과 W지역에 있는 4개의 고등부 특수학급 학생들 중 경도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고등부 특수학급 학생들의 진로계획 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계획 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상의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관련 선행연구 결과에 비추어 학생이 평정한 진로계획 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결과와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1. 학생들의 진로계획 능력에서의 차이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에 학생이 평가하는 진로계획성 검사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초·중기 청소년 직업체험학습을 실시했을 때 진로계획 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을 보였던 다른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박가열, 2008; 김진숙, 2008). 웹기반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의사결정하고 멘토를 통한 직업체험학습의 경험을 통해 청소년기의 주요한 진로발달 과제인 진로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등부 특수학급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유통 연계중심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직업인식검사 중 목적성과 준비성의 진로계획의 성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송은주, 이소현(200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웹기반을 통한 진로탐색활동이 직업목표를 선정하고 멘토를 찾아 직업체험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진로계획 능력과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에서는 진로계획 검사의 하위영역인 의사결정과정이해, 생애역할계획과 진로계획과정이해면에서도 많은 향상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용용 외(2008)의 연구에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지적장애대학생들의 진로탐색행동,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의사결정의 향상을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것은 진로탐색, 진로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들이 웹을 이용하여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발견하고, 진로탐색과 진로의사결정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인생 목표와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발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장애학생들의 진로계획의 과정이 고등부 특수학급 학생에게 실시되었지만, Wehmeyer(1998)는 장애학생들의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전환을 촉진시키는 요소로 학생의 강점, 요구, 흥미 그리고 선호의 결정을 조기에 시작해야 하고 학생의 진로를 통해 계속되어야 하며, 더욱이 장애학생이 자신의 진로흥미를 선택하고 탐색하는 과정에 포함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즉, 장애학생들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조기에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진로탐색, 진로체험의 과정을 초등부터 고등과정까지 일관성있게 계획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웹기반을 이용한 멘토링 진로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장애학생들이 웹사이트에 손쉽게 접속하여 학생들 자신의 강점, 요구, 흥미 그리고 선호사항을 알아보는 진로탐색과정과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가지므로써 장애학생들이 조기에 성공적인 전환의 요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것은 또한 장애학생들을 진로선택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장애학생이 자신의

생애역할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2.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의 차이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집단 학생들이 평정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에서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 직업체험학습의 참가를 통해 중등학령기 청소년의 진로계획성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많은 향상을 보인 연구(박가열, 2008)와 인터넷을 활용한 직업흥미검사, 직업가치관 검사, 진로정보 사냥대회, 구체적인 진로·직업정보 탐색 활동이 참가자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이기학, 한종철, 2000; 이은경, 2001; 김현진, 2003; 방경애, 2005) 결과들과 일치한다. 이것은 웹기반을 이용한 진로탐색과 진로의사결정 과정 활동을 통해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과 다양한 직업세계, 직업정보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여 자신의 진로 선택의 경험을 해 봄으로써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과 신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인터넷을 활용한 진로정보탐색활동이 학생들의 능력과 직업적 가치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검사의 하위영역인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에서 통제집단보다 실험집단에서 많은 향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체장애 대학생들에게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진로결정에 있어서 직업계획과 취업계획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와 일치한다(최용용 외, 2008). 이는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장애학생들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과정과 진로탐색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멘토의 지도를 통해 진로결정 수준에서 목표를 선택하고, 미래계획에 대한 진로이해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 결과이다. 특히 미래계획에 대한 진로이해수준의 향상은 본 연구의 실험집단의 학생들이 보여준 희망직업군 선택의 변화에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부록 1>에서 보듯이, 실험집단의 고등부 특수학급 학생 20명중 11명(55%)이 중재 전에는 진로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희망 직업이 없는 상태였지만 웹기반 진로탐색과 진로결정 프로그램을 실시 한 후 희망 직업의 선택에서 20명 학생 모두 자신의 희망직업을 찾고 직업군도 다양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 프로그램 시작 전의 고등부 특수학급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막연하고 환상적인 진로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현실에 맞는 진로선택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진로결정은 학생들 자신의 흥미나 적성, 능력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이나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학생들이 진로결정에서의 자기효능감이 향상됨을 밝히고 있다(이은경, 2001).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1단계 웹기반을 이용한 진로탐색단계에서 학생들이 웹사이트에서 직접 자신들의 직업적성과 직업흥미, 직업가치관과 종합적 자기이해의 과정을 거치므로써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이끌 수 있었다 할 수 있다.

Grandin(2007)은 장애학생들이 가지는 집착성을 동기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애학생들이 가지는 열정적인 관심을 통해 진로경로를 찾고, 그들의 방향과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멘토를 찾도록 제안하였다(Kochhar-Bryant et al., 2009 재인용). 특히 학교 밖에서의 실생활을 경험하고 이러한 학교 밖에서의 사회경험과 멘토와의 긴밀한 연계는 장애학생들이 졸업이후 지역사회의 참여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웹기반 멘토링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멘토를 구하고 멘토의 지도하에 다양한 직업체험을 해봄으로써 장애학생들의 목표선택, 직업선택, 문제해결, 미래계획에서 통제집단보다 유의한 향상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며 본 연구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는 많은 연구들은 대부분 일반학급의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고등부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부터 직업체험까지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봄으로써 장애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해 교사들에게 진로교육방향과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직업을 매개로 멘토와 소통하면서 고등부 특수학급 학생들의 사회성 함양과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자기결정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히 이론적인 면을 벗어나 현장 실습적인 면이 결합된 멘토링 직업체험과정을 가져봄으로써, 고등부 특수학급 학생들이 직업생활에서의 상황판단이나 문제해결력, 책임감, 어른과의 관계법 등을 배워나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실제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는데 이어 연구의 제한점 및 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와 관련된 추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학생들은 경기 S지역과 W지역 거주하는 고등부 특수학급 학생 40명으로 한정되어 지역적인 제한성이 있으며, 연구 대상 선정 및 실험진행의 용이성을 위하여 특정 학교에서만 연구가 진행되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

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장애영역에 걸쳐 많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인 진로계획 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가 장애학생의 자기보고방식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연구 결과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후속 연구에는 교사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타당도를 조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실험집단의 교사를 대상으로 보다 객관적인 중재충실도를 확인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인 진로계획 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는 일반학생 초등학생용과 고등학생용을 장애학생들에게 맞게 수정하였지만 문장 자체가 길고 장애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장애학생들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진로 검사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청소년들의 학교생활졸업 후의 성인생활을 성공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진로교육과 전환교육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장애청소년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초등학교부터 코스웨어로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코스웨어 개발을 추후 연구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섯째, 진로설정을 위한 e-mentoring 시스템 설계 및 구축을 통해 일반 고등학생들의 진로설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윤정호, 2008)를 고려할 때, 장애학생들의 진로설정과 진로교육을 위해 추후에는 멘토와 멘티의 연계를 위한 e-mentoring 시스템을 구축한 멘토링 시스템을 적용한 연구를 실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화 (2008).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진로성숙과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김봉환, 김아영, 차정은, 이은경 (2007). 청소년용 진로발달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8(2), 583-602.
- 김승국, 김옥기 (2006). **사회성숙도 검사**.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진숙 (2008). 활동중심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 김 옥 (2009). 진로지도 프로그램(CDP-H)이 전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김옥진 (2005). 진로교육프로그램이 고등학교 학습부진 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강옥희 (2003). 집단상담 진로탐색과 인터넷 진로탐색이 중학생의 진로성숙과 진로결정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혜 (1994). 컴퓨터 보조 진로상담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김희승 (2000). 고등학교 특수학급 진로교육실태 조사연구: 경기도의 특수학급 운영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현진 (2003). 인터넷을 활용한 진로정보탐색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창길 (2009).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특수학급 아동의 진로성숙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충기 (1999). 진로발달 접근을 통한 진로계획에 미치는 연구. **진로교육연구**, 10, 136-181.
- 곽금주, 박혜원, 김청택 (2002). **K-WISC-III**.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노윤경 (2003). 진로탐색프로그램이 실업계 여고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가열 (2008). 초·중기 청소년 직업체험학습이 진로계획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5(3), 115-130.
- 박미정 (2009). 청소년 인턴쉽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멘토 지도자 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박석돈 (2006). 지역사회중심 장애학생진로교육에 관한 연구. **재활과학연구**, 24(1), 85-102.
- 박영태 (2001). 직업주제 웹기반 프로젝트 학습에서 참여도 및 학업성적수준에 따른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진로태도, 학업성취도의 변화. 석사학위 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박필자 (2007).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의식성숙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방경애 (2005). 인턴쉽을 활용한 진로탐색프로그램이 인문계 고등학교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 이기학, 한중철 (2000). 대학생의 진로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 치료**, 12(1), 127-136.
- 이상일 (2009). **동아리활동이 진로계획에 미치는 영향: 관학합주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청구 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이은경 (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윤경 (2010). 장애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의 영향요인. 석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이경숙 (2007). 교과관련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임 언, 노일경 (2001). **아로플러스를 이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 언, 정윤경, 상경아 (2004).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의식성숙도 검사 실시요강**. 서울: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윤정호 (2008). 컴퓨터 관련 진로교육 방향설정과 진로설정을 위한 e-mentoring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창영, 고익환 (2005).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탐색 및 진로의사결정 프로그램. **학생생활연구**, 12(43-61).
- 임 언, 정윤경, 상경아 (2001).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의식성숙도 검사 실시요강**. 서울: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임은미, 장석희 (2004). 인터넷 활용 진로정보탐색 프로그램의 즉시적 효과와 지속적 효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8(4), 139-154.
- 이종범 (2005). 초등학생 진로발달 검사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석영 (2006). 진로탐색 및 진로의사결정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윤경 (2010). 부모의 진로기대가 자녀의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배재대학교 행정대학원.
- 안미영 (2007). 진로탐색프로그램이 인문계 고등학생의 자기이해 및 진로계획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숙경 (2004). 인터넷 카페를 활용한 진로탐색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정란 (2009). 인터넷을 활용한 진로정보탐색 프로그램이 고등부 여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 조은숙 (2008). 인터넷프로젝트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고교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주미아 (2006). 진로의사결정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성숙도와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은숙 (2008). 인터넷프로젝트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고교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최형심 (1999). 초등학생을 위한 활동중심 진로인식 프로그램의 효과.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최용용, 박외자, 김효현 (2008).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지체장애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진로 자기효능감,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육논총**, 8(1), 145-169.
- 신명순 (2010). 초등학생용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성숙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신희경, 김우영 (2005).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결정동기에 관한 연구: 개인, 가정, 학교의 역할. **직업능력개발연구**, 8(2), 47-83.
- 송은주, 이소현 (2007). 생산유통연계 판매망 구축프로그램이 고등부 특수학급 학생들의 직업 인식과 자기결정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Flexer, R. W., Baer, R. M., Luft, P., & Simmons, T. J. (2008). *Transition Planning for secondary students with disabilities*(3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Inc.
- Greene, G., & Kochhar-Bryant, C. A. (2003). *Pathways to successful transition for youth with disabilities*.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Inc.
- Kochhar-Bryant, C., Bassett, D. S., & Webb, K. W. (2009). *Transition to postsecondary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ousand Oaks, Ca: Corwin Press.
- Kalpan, H. B. (1980). *Deviant behavior in defense of self*. New York: Academic Press.
- Wehman, P. (2006). *Life beyond the classroom: Transition strategies for young people with disabilities*(4th ed.). Baltimore, MD: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 Wehmeyer, M. (1998). Self-determination and individuals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23(1), 5-16.
- Lee, S., Wehmeyer, M. L., Palmer, S. B., Soukup, J. H., & Little, T. D. (2008). Self-determination and access to the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2(2), 91-107.

The Effect of Web-based Mentoring Career Education Program on Career Planning Capacity and Self-efficacy related to Career Decis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High School Special Education Classroom

Song, Eun JU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Lee, Suk Hyang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It is important that students with disabilities who are close to graduation should be instructed to prepare and to plan their care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web-based mentoring career education program on career planning capacity and Self-efficacy related to Career Decision. For this purpose, 40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high school special education classrooms participated in this study(20 students in experimental group, 20 students in control group).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improvement in the level of career planning capacity and self-efficacy related to career decision-Making was statistically more significant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Students with disabilities using Web-based career instruction was able to discover their interests, aptitude and values through self-interest test and to improve capacities regarding their career-decision making by exploring various vocations. Also, students with disabilities specified their career due to the mentoring career program, during which they worked with a specialized mentor in the field in which they are interested.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ed further research directions and implications to develop a career program or a transition program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from elementary through high schools.

11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2권 3호)

Key Words

: students with disabilities, career education, career plan, self-efficacy

논문 접수: 2011. 07. 27 심사 시작: 2011. 08. 10 게재 확정: 2011. 09. 26

<부록 1> 웹기반 진로탐색과 진로의사결정과정을 통한 희망직업 선택 변화표

번호	이름	프로그램 전 희망직업	프로그램 후 희망직업	중등이후 선택	번호	이름	프로그램 전 희망직업	프로그램 후 희망직업	중등이후 선택
1	김○○	연주자	회사원, 택배직원	취업	11	손○○	기계공학자	인테리어업체직원	취업
2	진○○	진로계획 없음	제과제빵사, 세차원	취업	12	서○○	진로계획 없음	회사원(비숙련직)	취업
3	배○○	진로계획 없음	유치원보조원, 간병인	취업	13	박○○	진로계획 없음	회사원(공장)	취업
4	김○○	가수	환경미화원	취업	14	신○○	공무원	공무원	대학입학
5	이○○	진로계획 없음	회사원, 제과제빵사	취업	15	김○○	진로계획 없음	제과제빵사, 빵집점원	취업
6	강○○	진로계획 없음	문구점직원 혹은 문구점 경영	취업	16	이○○	교사	버섯재배원, 농업	취업
7	오○○	피아니스트	학교청소부	취업	17	하○○	경찰	자영업(식당운영)	취업
8	이○○	항공기 비행사	카페테리아직원	취업	18	김○○	진로계획 없음	회사원	취업
9	박○○	진로계획 없음	회사원, 제과제빵사	취업	19	임○○	가정주부	바리스타, 커피전문점직원	취업
10	신○○	진로계획 없음	롯데리아점원	취업	20	이○○	진로계획 없음	빔스 혹은 아웃백직원	취업

	희망직업군	진로계획 퍼센테이지
프로그램 실시 전	연주자, 가수, 피아니스트, 항공기비행사, 기계공학자, 공무원, 교사, 경찰	총 20명의 학생중 9명만 졸업후 진로계획 세움 (9명/20명=45%)
프로그램 실시 후	회사원, 택배직원, 제과제빵사, 세차원, 간병인, 유치원보조원, 환경미화원, 학교청소부, 문구점 직원, 카페테리아 직원, 인테리어업체직원, 버섯재배원, 자영업, 빔스 혹은 아웃백직원	총 20명의 학생중 20명 모두 졸업후 진로계획 세움 (20명/20명=100%)
프로그램 실시 후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실시 전 학생들의 희망직업군이 비현실적인 직업군들이 많았지만 프로그램 실시 후 학생들의 희망직업군이 조금은 현실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임. • 졸업 후 진로계획에 대해 프로그램 실시 전에 20명 중 9명만 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말했지만 프로그램 실시 후 20명 모두 진로계획을 세움. 		